

## 보 도 해 명 자 료 (‘19. 4. 22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산업부와 과기부는 원전해체 기술개발 과정에서  
신경전을 벌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, 부처간  
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. (조선비즈  
4.22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)

- 원전해체 기술개발은 이미 부처간 협력을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,  
기술역량 고도화·상용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입니다.
- 4월22일 조선비즈 <산업부·과기부, 원전해체 R&D 주도권 두고  
‘동상이몽’>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.

### 1. 기사내용

-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등 원전해체 R&D 주도권을 두고 산업부와  
과기부간 협이가 이뤄지지 않아 국무조정실이 중재에 나섬

### 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·과기부의 입장

- 원전해체 R&D 추진과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간 협이가  
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
- 양 부처는 원전 해체 R&D를 이미 협력하여 추진\*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 
해체 기술개발에 협력하기로 하고 동 내용을 『원전 해체 산업 육성  
전략』에 반영\*\*하여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상정·확정함(‘19.4.17.)

\* 양 부처는 ’12년부터 96개 해체기술 개발을 분담하여 추진 중(과기정통부 38개  
핵심기반기술 / 산업부 58개 상용화 기술)

\*\* “해체기술 고도화·상용화 기술개발”을 범부처 공동기획, 예타 등을 통해 추진

- 양 부처는 국내 원전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, 세계 해체시장  
진출을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

※ 문의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환경과 손호영 과장/류재형 사무관 (044-203-5318)  
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과 장흥태 과장/전승윤 사무관(02-2110-2452)